

 <p><b>정치하는엄마들</b> www.politicalmamas.kr</p>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9. 06. 20. 목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강미정 활동가	010-9995-5245
	배포일시	2019. 06. 20. 목	총 매 (별첨 0건)

##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망사고 정부대책 촉구 및 대국민 청원참여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김정덕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및 경위)
  2. 김장희 님 (태호 아빠)
  3. 000 님 (유찬이 아빠)
  4. 000 님 (부상아동 아빠 - 익명 철저 보장해 주시고, 사진 보도는 절대 삼가주십시오.)
  5. 진유경 활동가 (연대 발언)
  6. 백운희 활동가 (연대 발언)
  7.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태호아빠 발언문>**

유찬이와 태호와 같은 사고를 다시는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 동일한 관리규정 아래 두어야 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과 축구클럽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유니폼을 입혀 보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해외 체류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 날은 할머니가 태호의 하원에 맞춰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어주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원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회사에서 뛰쳐나와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응급실에서는 아이의 신원확인이 안되고 치료중이란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온갖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을 떨쳐내며, 응급실로 차를 내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한 곳으로 안내를 하며 신원확인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흰 천으로 덮힌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천을 들어 내 보니, 태호와 같은 반, 제일 친한 친구 유찬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축구하러 보낸 아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 걱정에 뒤를 돌아보는 찰나에 한 아이가 똑같이 흰 천으로 덮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흰 천으로 덮힌 조그마한 채구 옆에 축구클럽의 유니폼 바지가 보였습니다. 제발 태호가 아니길 바라며, 아니, 태호 바지가 아닐거라 생각하며, 천을 들어보았습니다.

저의 아들 태호는 세상 편한 얼굴로 눈을 반쯤 뜬 채 누워있었습니다. 평소 자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응급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호는 같은 반 친구, 유찬이와 같이 축구를 하러 하늘나라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니, 보내기 싫습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말 집요하리만큼 묻고 또 묻고, 원인이 무엇일까, 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교통사고경위와 구급일지, 응급처치일지를 구해 이곳저곳을 자문을 구하며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 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세림이법’ 이란 것이 있습니다.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탔던 노란셔틀버스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지금 어떤 노란셔틀버스를 타고 학원에 다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조카 분들이 스티커만 “어린이보호차량” 이라고 붙인 노란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아이들은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유찬이와 태호와 같은 사고를 다시는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고이 보내줘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간다고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보내지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발 이런 사고를 겪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모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 동일한 관리규정 아래 두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원셔틀버스 차량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국민청원에 한 표를 보태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 <태호엄마 발언문>

저는 태호 엄마입니다.. 태호와 유찬이 ..우리아이들을 떠난지도 한달하고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을 채 엄마이지 못했던 저는 아직 내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올해 태호가 8살..그리고 저는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 태호는 8살이 되어서 ,이제는 초등학교 형이 된다고, 집에서 내려다보이는 학교를 매일 바라보며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축구클럽에 보내주기로 약속도 했고, 입학선물로 엄마아빠와 손을 잡고 가서 축구화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5월15일 그날도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축구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 길은 얼마 멀지도 않는 5분 거리입니다.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집이 멀지도 않았는데...태호는 친구 유찬이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수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노란차가 어떻게 빨간불에 85키로 진입을 했을까.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다니던 축구클럽은 학원도 교육기관도 아니었고, 업종이 운동경기, 레저 용품판매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아무 법적규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아이들이 타던 노란차가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닌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태호와 유찬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또 뉴스에서는 노란차 사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바뀌어야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비록 태호와 유찬이가 돌아올수 없다는 건 알지만..힘을 모아야합니다. 저는 태호엄마니까요.

### <기자회견문>

세립이법, 하준이법 오늘은 태호유찬이법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불과 한 달 여전 유찬이와 태호를 하늘로 떠나보낸 엄마아빠들이 성치 않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곳 청와대 앞까지 왔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태호 엄마, 태호 아빠는 전단지들을 돌렸습니다. 마감일 3일 앞두고 아직 3만명이 모자라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마음속으로 제 아이 이름 뒤에 ‘법 자’ 를 붙여보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태호와 유찬이의 소식을 접하고 자는 아이의 손을 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손을 다시는 잡지 못한다고 상상하니 온 우주가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세립이도 하준이도 태호와 유찬이도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히 들으세요. 국민들이 왜 정치를 싫어하는지 압니까?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떠난 유찬이, 태호 그리고 부상당한 아이들의 엄마아빠들을 이렇게 거리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자회견을 할 일입니까?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굳이 달성해야 해결할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은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탔던 승합차는 노란색이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축구클럽은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권도, 수영은 체육시설인데 축구는 아니랍니다. 영어학원도 가고 축구클럽도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법체계는 아이가 영어학원 갈 때만 생명권을 보장하고 축구클럽 갈 때는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전한 권리, 생존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귀속돼있고, 모든 아이들이 가진 권리입니다.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립이법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는 당장에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조치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태호와 유찬이 부모님들은 20만명 청원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저 모양이고 아마 내년 총선 준비도 하나같이 바쁠 것입니다. 태호, 유찬이에게 아무 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재선은 하면 뭐할 겁니까?

어린이통학차량이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도 2점식 안전벨트가 안전장치의 전부입니다.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에서 보듯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도 2점식 벨트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아빠 차를 탈 때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유독 학원차, 어린이집 유치원 차를 탈 때는 2점식 벨트만 매도 합법이라니, 이 나라 법체계는 아이들의 생명권 보다는 영업이익 추구하는 게 상위의 가치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통학차량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녔던 송도 축구클럽의 업종은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운동

경기, 레저용품' 이었습니다. 즉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강사들의 신원을 검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56조 57조, 아동복지법 29조에 따르면 학교, 학원, 체육시설, 아동관련기관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모든 종사자들은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이 또 하나의 땀질법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답을 내놓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와대에 면담요청도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의 정립을 통해 다시는 양육자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거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20일

정치하는엄마들